특별기고

게임, 이제 스포츠가 되다

이준석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락실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잠시나마 우리를 즐겁게 해 주던 모니터 속 게임이 이제는 축구나 야구 같은 정식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설마 실제 게임 캐릭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함정'이라도 넘는 것이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바로 'e 스포츠' 이야기이다. 이미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6개 종목 18명의 선수 및 감독이 선발되어 참가를 했고 메달을 획득했던 종목이기도 하다. 이것을 e스포츠라고 통칭하는 일렉트로닉 스포츠(electronic sports)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금융위기부터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가정용 PC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수많은 PC방 등장은 e스포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보급시켰다. 당시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은 게임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조작을 했는데, 이것은 게임 내에 협동과 관전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낳았다. 당시 이 유행을 이끈 것은 스타크래프트이었다.

세계 인구 10% e스포츠 관심

스타크래프트는 게임 중에서도 전략시뮬레이션에 속하는데 이 장르는 룰이 공정하고 오직 승부를 선수들의 전략과 컨트롤에 맡긴다는 면에서 더욱 기존 스포츠와 유사했다. 스타크래프트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혹은 1:1로 대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겼고, 이것은 PC방을 대상으로 한 작은 대회로 이어졌다. 마치 옆 동네에 원정 온 딱지 잘 치는 꼬마처럼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본인의 게임 기술을 뽐내는 것이다. 당시 만화를 전문으로 송출하던 케이블채널 투니버스는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심야방송으로 본격적으로 송출했고 이것이 온게임넷(현재 ONG)이 된 것이다.

게임 전문 방송사를 시작으로 각종 기업은 게임 대회를 주최하고 스폰서가 되었으며 이때 등장한 임요환, 홍진호, 박정석, 이윤열 등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해진, 게임 잘하는 청년들은, 프로로 돈을 받는 전문적인 프로게이머가 됐다. 또한 삼성, KT, SK 같은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프로팀이 만들어지며 신한은행, 코카콜라, 소니 등 다양한 스폰서를 바탕으로 꾸준한 대회를 통해 하나의 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에 다가왔으며 2013년 미국 정부는 e스포츠 선수들을 프로 스포츠 선수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시작된 e스포츠의 시작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2015년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시청자는 3,600만 명 이상으로 같은 해 월드시리즈와 NBA 결승의 시청자 수를 넘었으며 게임, e스포츠, 모바일 관련 리서치사인 뉴주는 2017년에 3억3500만 명이 e스포츠를 시청했고 올해는 4억5400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2년 e스포츠 시청자 규모를 6억4500만 명으로 예상하며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에 가까운 수가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e스포츠 산업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스폰서십, 광고 및 미디어 권리 등의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e스포츠 규모가 곧 10억 달러 고지에 오를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전용경기장 확보 새로운 기회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e스포츠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광주·부산 등 3개 지역에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 설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1,005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함께 16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영상조정실, 기자실, PC존(훈련장) 등을 한 건물에 구성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리그오브레전드 4강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e스포츠 리그를 국내 정규대회와 정기적인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호남대학교의 경우 2020년 e스포츠산업학과 개설과 중국 대학과의 국제 e스포츠 교류전 추진 등을 통해 e스포츠의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스포츠를 넘어 산업화로 진화하는 'e스포츠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영화로 보는 성실신고 지원제도

정진호
광주세관 납세심사과장

관세청은 서울, 광주 등 각 본부세관에 성실신고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납세자가 오류 없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생각해보면 '이연걸의 태극권'이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1993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이연걸, 양자경과 같은 당대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홍콩 무협영화의 화려한 액션을 감상할 수 있는 그 당시 크게 흥행했던 영화이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보(이연걸)가 태극권의 원리를 깨닫는 장면이다.

친구의 배신으로 정신이 나간 군보는 어느 날 공이 벽에 부딪혀 물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군보는 공을 세게 쳐 물에 집어넣으려 하지만 공은 오히려 세게 솟구쳐 오른다. 하지만 지그시 공을 누르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이 물에 잠기는 걸 보게 된다.

이 장면은 태극권의 원리인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전까지 세관에서는 관세조사, 가산세 부과와 같은 방식을 통해 납세신고 오류를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납세자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고의적인 관세탈루는 감소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때야말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처럼 강제적 수단보다는 세관과 기업이 사전에 과세문제를 함께 공유·해결하는 상호협력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 세관은 관세행정 고객과의 신뢰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적인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품목분류(관세율)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성실신고 의지가 있음에도 복잡한 규정과 관세율·과세가격 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신고오류가 발생하여 최대 5년치 수입신고 분에 대한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둘째, 세액신고 오류에도 불구하고 납부 후 6개월 이내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보정제도와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조기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일부 경감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납세도움 정보(납세예상오류, 절세팁)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신고오류를 예방하거나 조기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성실신고 노력 기업에게는 관세조사 완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용 같은 혜택을 강화하고, 이와 반대로 불성실신고기업에게는 벌금, 가산세 등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혜택을 배제하는 차별화로 성실신고제도의 근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영화는 극중 이연걸이 무당산에 입산하여 태극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영화의 결말처럼 관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려 건전한 납세신고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독자광장

봄철 야외운동 안전하게 즐기자

차가운 바람의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등산·조깅·자전거 등 야외로 운동을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겨우내 굳어있던 몸은 부상에 취약하며, 특히 격렬한 운동은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봄철 부상 없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부상 방지.

자동차 운행 전 예열이 필요하듯 운동을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준비 운동은 격렬한 운동 시 부상을 막아줄 뿐 아니라 체온을 상승시켜 근육의 속도와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혈류를 증가시켜 심장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며, 어깨나 무릎 같은 큰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열정이 넘치게 되면 급한 마음에 준비 운동을 건너뛰기 쉽지만 운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 예방.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며,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운동효과까지 감소시킨다. 또한 운동 중 갈증, 발열, 경련 등을 동반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 전, 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운동 중에는 틈틈이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수분 섭취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

셋째, 야외 운동기구 안전하게 사용.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쉽게 야외 운동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야외 운동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파손, 고장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운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어린이, 환자, 노약자 등은 운동기구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넷째, 야외 운동에 좋은 시간을 활용.

초봄에는 일교차가 심하여 저체온증이나 환절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새벽이나 밤에는 가급적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낮의 길이가 길어져서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운동 피로 현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운동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틈틈이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취침 전의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하자.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니 만큼 다치지 않고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여 따스한 봄을 즐기도록 하자.

/영암소방서 영암119 안전센터 정내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3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3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부 (062) 720-1050~54
사회2부 (062) 720-1043~45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진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0
기획실 (062) 720-1005
논설실 (062) 720-1032
월간국 (062) 720-1006~07
관리국 (062) 720-1012
판매국 (062) 720-1098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사설

광주민간공원 의혹 말끔히 해소돼야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기되는 의혹은 말끔히 해소돼야' 하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다. 광주 경실련은 17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며 광주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은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전 제안서 평가점수 유출 ▲규정과 달리 탈락업체의 이의제기 수용 ▲특정감사 실시 이유 ▲도시공사의 협상자지위 반납 경위 등이다. 앞서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단체는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직원들을 파견해 사업자 변경 과정이 적절했는지, 공무원들의 유착 등 비위행위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만에 하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불법·비리 의혹이 드러난다면 우선협상자 선정 백지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오는 2020년 6월 공원일몰제에 맞춰 진행 중인 민간공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은 경징계 처분 했다.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모양새다. 어쨌든 이 같은 의혹들이 시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유통업체 '지역상생' 큰힘이다

요즘 광주와 전남지역의 농어민의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그러자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 농어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직거래로 손잡았다.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농어민과 직거래를 늘리고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해 보자는 생각에서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책이다.

광주신세계는 1995년 오픈 이후부터 '광주신세계 식품 바이어 시스템'을 도입해 산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에게 판로 확보와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호남지역 곳곳의 우수 생산물을 꾸준히 발굴하는 '호남물산전' 행사와 명절 '로컬 기프트'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다. 지역농어민들이 반길 만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역 농어민과 직거래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전라·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별도 MD팀을 구성하고 직거래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이 안정되고 서로 이익이다. 또한 소비자는 싱싱한 산지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석삼조의 상생효과가 난다. 그뿐인가. 지역 농어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지역 대형유통업체가 농어민의 판로확대와 소비 촉진에 나서면서 판로개척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도 힘이 되고 지역 농어촌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60대, 우리도 즐기고 싶다

기자수첩

이보람
문화부 기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생겨났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60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나이로 변했기 때문.

구독자 수 82만 명을 지닌 '막례쓰'의 박막례 할머니는 70대의 나이로 유튜브 스타가 됐고, 최근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열창한 지병수 할아버지 또한 77세의 나이에 '할담비'로 불리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지병수 할아버지의 영상은 업로드와 동시에 조회수 229만 명의 기록을 남기며 각종 언론사 인터뷰는 물론, 광고모델로 캐스팅돼 다시 한번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외에도 먹방 크리에이터들과 60대 신인 모델 김칠두 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년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가요를 부르고 유행하는 화장을 하는 등 여느 젊은 세대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신선함과 동시에 노년 세대 역시 충분히 즐기며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력 없고 경제력도 없었던 예전 노년 세대의 삶과는 확연히 다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건강과 경제력을 지녔음에도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은 한정돼 있다. '유병장수'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겨났을 정도로 늘어난 수명에 비해 노년을 위한 준비가 미약한 상황.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생활에서도 도드라진다.

앞서 언급한 노년 스타들은 극히 일부일 뿐, 여가 시간에는 집에서 화초를 기르거나 TV 시청이 대부분이다. 성인가요 콘서트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제외하면 즐길만한 공연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과거 대학가요제 스타들을 한데 모아 '대학가요제 리턴즈'를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는 아이돌 가수에 밀려 설 무대가 줄어든 노년의 가수들이 공연의 주인공이 됨과 동시에 그들을 추억하는 같은 세대의 관객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계기로 노년들이 주가 되는 문화 콘텐츠가 많아져, 문화 차별 현상을 줄여야 할 때다.